

세계로 가는 길목: 한국디자이너대회

1998

디자인총원사

- 영남지역분원 개원
- 한국디자이너대회 '어울림' 개최
- 《어울림 한국 현대포스터 대전》개최
- 창업디자인 박람회 개최
- KIDP 범제팅 신설
- 코리아디자인센터 기공식
- 제2차 진흥종합계획 수립 (1998-2002)

한국 디자인사

- 디지털캐스트 세계 최초 상용 MP3 플레이어 개발
- 대우자동차 마티즈 출시
- 제1회 《한국 캐릭터디자인 공모전》
- 진로 참이슬 브랜드 디자인
- 웹디자인 에이전시 FID 설립

한국 사회사

- 금 모으기 운동
- 김대중 정부 출범
- 리니지 서비스 시작
- 일본 대중문화 개방
- 금강산 관광 시작
- 인터넷서점 YES24 개점

'세계화'라는 말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때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우리나라에서 화두가 된 것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일이다. 문민정부 출범 후 1년 뒤인 1994년 4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국제화추진위원회와, 12월 그 뒤를 이은 세계화추진위원회는 급변하는 국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세계 질서의 확립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과제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1996년 6월,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발표한 '디자인 산업 세계화 방안'은 그 결과물 중 하나였다. 이 연구는 2000년까지 디자인 선진국 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기획된 다양한 전략을 담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2001년을 '디자인의 해'로 선포하고 '세계 디자인 페스티벌'(가칭)을 개최하는 계획이었다. 1997년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와 세계산업디자인대회의 서울 유치가 연이어 성공한 배경에는 정부가 추진한 이러한 세계화 정책도 한몫을 한 셈이다. 특히 세계산업디자인대회의 경우 1993년부터 추진한 '산업디자인 발전 5개년 계획'에서부터 대회 유치를 꾸준히 추진해 온 터라 밀레니엄을 맞이해 개최하게 된 데 대한 디자인계의 기대감은 끝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1998년 4월, 연이은 국제적인 디자인 행사를 앞두고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하는 행사가 한국종합전시장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바로 KIDP와 한국디자인법인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한국디자이너대회 '어울림'이었다. 이날 행사는 '디자인 혁명, 수출 2배, 경제 르네상스'라는 주제로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 700여 명의 디자이너, 정부, 문화계, 교육계, 업계, 언론계 인사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21세기는 문화와 경제가 하나가 되는 문화 경제의 시대가 될 것이며 두뇌 강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디자인 산업은 이 같은 시대적 요구를 가장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핵심적 문화 산업이다. 향후 디자인 정책을 대폭 강화할 것이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행사는 시기적으로 IMF 구제금융으로 국내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던 시기에 수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하며, 디자인계의 결집과 산업 경쟁력 증진에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한 것이다. 동시에, 2000년과 2001년에 열리는 양대 세계 디자인 대회의 주제로 '어울림'을 제시해 디자인계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다지고, 세계 속에 한국 디자인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어울림'이라는 행사는 우주의 음양 원리를 바탕으로 동양과 서양, 인간과 자연, 기술과 정신, 남과 여, 빈과 부, 남과 북 등 모든 대립적 요소들을 하나로 어우르는, 그래서 새롭게 완전한 하나를 만드는 우리 고유의 사상으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디자인 이념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이 '어울림'이라는 주제는 양대 세계 디자인 대회의 사전 행사 성격으로 열린 1999년의 《어울림 한민족포스터대전》과 '어울림 국제디자인포럼'에서도 이어졌다.

《어울림 한민족포스터대전》은 분단 이래 처음으로 한국과 북한 디자이너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여, 이념과 분단 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을 극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9년 6월 3일부터 6일간 KIDP 전시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한국 측 313점, 북한 측 56점 등 총 369점이 전시되었다. '어울림 국제디자인포럼'은 양대 세계 디자인 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환영 행사를

서, 세계 최초로 세계 디자인의 3대 기구인 ICSID, ICOGRADA, IFI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인터디자인’99’, ‘x.D 1999’, ‘WING 1999’ 등의 세미나, 현장 워크숍 중심의 3개의 행사로 구성되었다.

이외에도 1990년대 후반, 디자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흐름은 1999년 제1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 및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도입으로 연결되었다. 국



1



2



3

1 1997년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와 세계산업디자인대회 대회 유치 발표 직후 환호하는 장면

2 1999년 〈어울림 한민족포스터대전〉

3 1998년 한국디자이너대회

4 제1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 대통령 및 디자인계 인사 서명록



내 디자인 공식 행사를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대한민국디자인진흥대회는 21세기 디자인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범국민적인 디자인 품질 조성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대한민국디자인대상과 우수디자인(GD) 선정 우수 사례 발표 및 시상식을 함께 진행해 디자이너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경영자로 하여금 디자인 경영을 독려함으로써 국가 디자인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